

**'공익농업 협동경영체' 지원을 위한
농촌 유희시설의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마을연구소 / 정기석 연구소장

마을연구소



- 요약(결론) -

■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의 설립 목적

○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의 지원으로 조성되었으나, 당초의 사업목적이나 기대효과와는 달리 운영성과가 부실하거나 부진해 유휴시설화된 각종 시설(기초생활기반 확충 관련, 지역소득 증대 관련, 지역경관 개선 관련 등) 대상

-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을 통한 임대차 및 매매사업을 통해 해당시설을 재활용하고 마을·지역공동체사업의 활성화를 촉진

■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의 운영 방식

① 자산 임대 및 매도 신청

- 자산 소유한 농업인, 농업법인, 지자체 등이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에 신청

② 자산 임차 및 매입 신청

- 자산을 임차, 매입하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에 신청
- 이때, 임차료 및 매입대금 지원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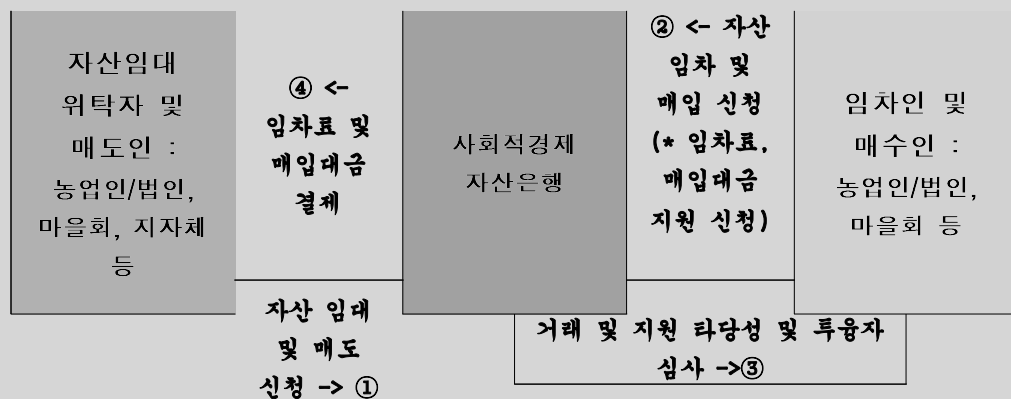
③ 거래 및 지원 타당성 심사

- 임대차, 매매거래 타당성 심사 : '공익농업 협동경영체' 여부, 사업 및 창업계획 적정성 여부
- 임차료, 매입대금 지원 타당성 및 투·융자 심사 병행

④ 임차료 및 매입대금 결제

-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을 통해 임차료 및 매입대금 결제

<그림>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의 운영 흐름도



■ 요약(결론)

제1장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2. 선행연구 검토
- 1-3.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 1-4. 연구방법
- 1-5.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현주소와 문제점

- 2-1.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오류와 실패
- 2-2. 귀농촌 지원정책의 한계와 진실

제3장 농촌지역개발사업 조성 시설 현황

- 3-1. 기초생활기반 확충 분야
- 3-2. 지역소득 증대 분야
- 3-3. 지역경관개선 분야
- 3-4. 기타 공유자산

제4장 농촌지역 유희시설의 실태

- 4-1. 농촌지역개발사업 유희시설 실태
- 4-2. 기타 농촌지역 공유자원 현황
- 4-3. 유희시설 지역공유 사업 사례

제5장 '지역공유 사회적경제자산은행' 설립 및 운영 방안

- 5-1. '농지은행' 운영 사례
- 5-2. '지역공유 사회적경제자산은행' 운영 방안

제6장 '공익농업 협동경영체' 중심 연계 지원방안

- 6-1. '공익농업 협동경영체' 조직화 및 운영 모델
- 6-2. '공익농업 협동경영체' 중심 사회적경제자산은행 활용 방안

제7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발 방안

- 7-1. 관련 법제화 방안
- 7-2. 관련 재원조달 방안

■ 참고문헌

제1장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2. 선행연구 검토
- 1-3.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 1-4. 연구방법
 - 1-5. 연구의 기대효과

제1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1. 연구의 필요성(배경)

■ 농촌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 유휴시설 활용 방안 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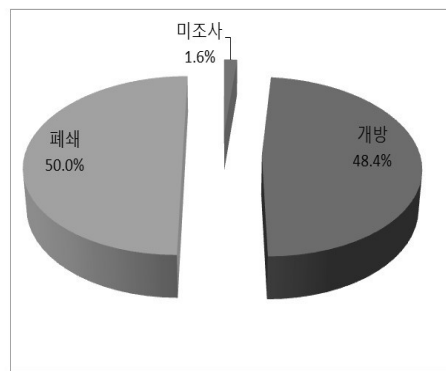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등 농촌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 마다 특화된 활성화 프로그램 부재, 부실한 사후관리로 인해 유휴시설 이 증가하고 주민 간 분쟁 등 부작용, 휴유증 야기
- 각종 사업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별 활용방안이 미흡하거나 부재하여 건립된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부진
- 그 결과 당초 사업목적이나 기대효과와는 달리, 각종 기초생활기반 확충 관련 시설(예 : 커뮤니티센터 등), 지역소득증대 관련 시설(예 : 농식품 가공장 등), 지역 경관개선 관련 시설(예 : 생태공원 등) 등의 유휴시설 방치, 전략 사례가 전국적으로 만연

※ 참고 : 한국농어촌공사는 2011년까지 준공된 89개 권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하드웨어 운영 실태를 정량적으로 분석

- 조사대상 권역의 50%에 달하는 시설물이 폐쇄상태인 것으로 조사

[표/그림] 준공 하드웨어 운영 여부(한국농어촌공사, 2012. 12월)

운영	갯수	비율(%)	주요시설
개방	187	48.4	마을회관, 농산물가공시설, 저온저장고
폐쇄	193	50.0	체험관, 문화복지센터, 방문객센터
미조사	6	1.6	
합계	386	100.0	



■ 귀농촌¹⁾인 등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요구 대응

- 최근 수년간 귀농촌 인구 폭증 등에 따라, 귀농촌인의 농촌창업, 원주민과 결합한 마을공동체사업 등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농촌 정주 지원 대책 요구 집중

■ 지역단위 '협동경영체' 대안 모델 개발 필요

- 기존의 마을단위 또는 권역단위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주민역량의 한계, 규모의 경제 부적합 등으로 인한 실패요인의 근본적 차단 요구
 - 지역단위(예 : 군 단위 이상)의 이른바 '지역공유 협동경영체' 대안 모델 개발 필요

<그림>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요 시설 및 인프라(H/W) 유형 및 사례



1-1-2. 연구의 목적

■ 농촌지역 유희 시설물의 유형별, 운영특성별 활용 모델 개발

- 유희시설 활용의 최적화 방안 도출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방안

■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 설립 및 운영 방안 도출

1) 본 보고서에서는 귀농과 귀촌을 구분하지 않고 '귀농촌'으로 통칭하기로 함.

○ 이른바 ‘공익농업 협동경영체’ 중심 마을·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농촌 유희시설 자산을 장기저리 임대, 저가할인 매각하는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 설립 및 운영 방안 개발

■ ‘공익농업 협동경영체’ 설립 및 운영 모델 개발

○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의 지원을 통한, 마을·권역·지역단위 ‘공익농업 협동경영체²⁾’ 설립 및 운영 모델 개발

1-2. 선행연구 검토

1-2-1. 농촌지역개발사업 유희시설 관련

■ <마을종합개발사업 준공권역 하드웨어 구축 실태조사 및 하드웨어 구축방안 수립> :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2012년 12월

○ 2011년까지 준공된 89개 권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하드웨어 운영 실태를 정량적으로 분석

- 조사대상 권역의 50%에 달하는 시설물이 폐쇄상태인 것으로 조사

<표> 준공 하드웨어 운영 여부(한국농어촌공사, 2012. 12월)

운영	갯수	비율(%)	주요시설
개방	187	48.4	마을회관, 농산물가공시설, 저온저장고
폐쇄	193	50.0	체험관, 문화복지센터, 방문객센터
미조사	6	1.6	
합계	386	100.0	

○ 운영 부실 : 권역간 연계 미흡, 역량 및 의지 부족, 프로그램 미운영, 운영관리 시스템 부재, 공동시설 규모 과다, 주체 간의 갈등 등이 원인

○ 건축물의 방치 : 소득시설의 유희화, 체험관의 낮은 활용도, 수익이 낮아 유지관리의 어려움, 체험 프로그램 부재, 운영목적의 불명확, 시설물의 방치 등으로 조사

○ 소득사업의 부적정 사용 : 시설의 사유화, 소득법인 미설립, 권역기금 미납부, 소득기반시설의 자부담 미징수, 소득시설로 미분류, 회계처리 불투명, 소득사업을 체험사업으로 분류 등의 사례

2) ‘공익농업 협동경영체’ : 농업을 바탕으로 마을과 지역의 공익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영농조합,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사회적경제조직

- 허가용도 외 전용 : 타 용도로 임대식당 운영, 타 용도로 전용시설의 사유화등

1-2-2. 농촌지역 공유자원 관련

■ <농촌지역 공유자원의 이용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김경덕 외, 2013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근 농촌의 자연환경, 여가 및 문화 등 농촌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활성화에 관심이 고조

- 사라져가는 전통 농어업 자원을 발굴·보전·전승하기 위해 농어업유산제도를 도입·시행하거나 농촌지역 전통자원의 지역별 브랜드화, 관광자원 활용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미지 제고를 기대

- 이 연구는 수리계·공동방목장·산림계·지역공동브랜드를 농촌지역 공유자원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고, 농촌지역 공유자원의 이용 및 운영 메커니즘을 규명

- 공유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농촌 지역공동체의 자율적 운영 및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1-3.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1-3-1.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4년 10월~2015년 3월(6개월)

■ 공간적 범위 : 농촌지역개발사업 실행 사례지 등 전국의 농촌지역

1-3-2. 주요 연구 내용

■ 농촌지역개발사업 유희시설 유형별 실태조사 및 분석

- 기초생활기반 확충 관련 시설 : 커뮤니티센터, 문화복지회관 등
- 지역소득증대 관련 시설 : 체험농장, 농식품 가공장 등
- 지역경관개선 관련 시설 : 생태체험공원 등
- 기타 공유자산 : 농지, 폐교, 관공서 등

■ 농촌지역 유희시설 공유 및 활용 실행 모델 개발

- 농촌지역 각종 유희시설의 마을공동체사업 연계 및 활용방안 개발
- 농촌지역 유희시설의 귀농촌인 및 원주민의 마을공동체사업 활용 및 운영방안 개발

■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 설립 및 운영 방안 도출

- 공익농업 협동경영체 중심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농촌 유희시설 자산을 장기저리 임대, 저가할인 매각하는 등의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 설립 및 운영 방안 개발

■ '공익농업 협동경영체' 설립 및 운영 모델 개발

-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의 지원을 통한 '공익농업 협동경영체' 설립 및 운영 모델 개발

※ '공익농업 협동경영체' : 지자체 단위마다 농촌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서로를 위해, 농촌마을공동체를 위해, 보유하고 발굴한 농촌의 특화자원(농업, 향토, 문화, 생태 등)을 활용해 소득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서비스를 위해 더불어 설립하고 경영하는 지속발전가능한 '지자체 단위 공동사업체'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원칙
- 예 : 진안마을주식회사

<표> '공익농업 협동경영체'의 유망사업 사례

분야	사업과제		사업내용
경제 사업	마을 벤처	마을농장	친환경임산물생산사업(1차)
		마을공장	고부가임산물가공사업(2차)
		마을가게	도농직거래유통(3차): 현지직판장->마을시장 및 LocalFood시스템연계/확장
		마을공원	도농교류 체험관광 사업(3차 → 6차)
	마을 시장	마을은행	노동력매개마을화폐(Lets)발생 및 거래 → 대안금융기관
		마을장터	현물, 상품, 인력(품앗이)시장
생태 사업	마을R&D센터	마을발전소	태양광, 열, 바이오매스,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
		마을연구소	친환경농사, 생태건축, 농촌R&D 등 농업 및 농촌지역 연구 및 활용
	마을체험캠프	산촌캠프	산촌체험, 임업체험, 산촌공동체생활체험,

교육 사업	마을학교		산촌역사문화체험 등
		자연캠프	산골체험, 하천체험, 경관답사체험 등
		어린이학 교	산촌유학, 방과후학교 등 유소년 ~ 청소년대상 대안교육 프로그램
	마을학원	어른학교	교사학교, 지역학교 등 성인대상 지도자교육 프로그램
		마음학원	마음공간(명상), 생각공간(문학) 등
생활 사업	마을생활원	몸학원	몸짓공간(춤), 손짓공간(공방,그림), 소리짓공간(노래) 등
		마을펜션	마을식당/Café, 게스트하우스 등
	마을문화관	마을회관	마을공동 편의시설(빨래방, 찜질방, 목욕탕) 등
		마음문화 관	마을도서관, 마을박물관 등
		몸문화관	마을공연장, 마을출판/신문사 등

■ 관련 지원사업 법제화 방안

-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 설립 및 운영 근거 법률 및 조례 제정
- '공익농업 협동경영체' 지원 근거 법률 및 조례 제정

■ 관련 지원사업 재원 규모 예측 및 조달 방안

-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 설립, '공익농업 협동경영체' 지원 등 정책지원 사업 소요 재정 규모 및 조달 방안

1-4. 연구방법

■ 농촌 유휴시설 자산 현황 • 실태 조사 및 분석

- 토지, 건물, 장비 등 유휴시설 유형별 활용 실태 조사(표본, 대표 사례)

■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 각종 농촌 유휴시설 자산 기반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 '공익농업 협동경영체' 설립 및 운영 모델 개발

-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의 지원을 통한 '공익농업 협동경영체' 설립 및 운영

1-5. 연구의 기대효과

■ 농촌지역에 방치, 사장된 유휴시설의 재활용

- 기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등 마을 및 권역단위 농촌지역개발사업 사례지의 사업시설 인프라는 다양
- 농식품가공장, 체험교육장, 도농직거래판매장, 도농교류체험장 등 재활용 가능 유휴시설물이 전국 각지에 산재

■ 유휴시설 기반 마을공동체사업(농촌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 지역주권법(Localism Act) 등으로 유휴시설의 지역공동체사업 활용이 활성화된 영국 등과는 달리, 한국의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로 커뮤니티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의 단계로 발전되는 사례가 적음
-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과 이를 기반으로 한 '공익농업 협동경영체'를 통해 '농촌형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 것은 물론,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지속발전가능한 전망을 개척
- 이같은 농촌지역개발사업 운영 사업조직을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농촌형 사회적기업으로 법인화하는 과정에서 귀농촌인이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결합할 필요

■ 귀농촌인 등 농촌창업, 농촌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재생

- 가령 '농촌지역개발사업 H/W(인프라) 기반, 농촌형 사회적기업 S/W(휴먼웨어) 중심의 농촌지역개발사업 자립경영 모델'의 구현이 가능
- 지역의 원주민과 귀농촌인이 마을·지역단위 공동체사업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영국의 '지역주권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농촌지역 유휴시설의 사용권 또는 소유권을 제공하면 됨
- 이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공동체(사회)의 재생을 촉발

제2장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현주소와 문제점

2-1.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오류와 실패

2-2. 귀농촌 지원정책의 한계와 진실

제2장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현주소와 문제점

1-1.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오류와 실패

1-1-1. 한국 농촌마을 만들기의 실상

■ 한국의 농촌마을만들기는 1970년대 물리적 환경개선 위주의 개발지향적 ‘새마을 운동’으로 본격화

○ 1980년대 들어 농촌정주생활권 개발, 농공단지 등 농촌공업화, 소도읍 활성화 등 공업화 패러다임으로 전환

- 1990년대는 농지제도 폐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농촌지역 난개발의 역사로 점철

- 비로소 2000년대 들어 국토균형발전, 상향 공모식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의 전향적 정책이 도입

■ 그동안 농식품부를 비롯해 농진청, 행자부, 문화부, 환경부 등의 각종 농촌지역개발 관련사업이 양산

○ 하지만 부처 간 헤게모니 다툼, 중앙과 지방의 불협화음, 행정과 주민의 갈등만 야기하며 파행과 시행착오의 사례가 난무

- 그럼에도 정부는 ‘개발’이라는 교조적인 관성과 관행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 상태

○ 2010년 기준으로 20호미만의 과소화마을은 전국적으로 총 3,091개에 달함

- 이는 전체 농촌마을(36,496개)의 8.5%를 차지

- 곡물자급률은 22.6%에 그치고 주곡인 쌀을 제외하면 4%대로 급락

○ 이렇게 오늘날 한국의 농촌마을은 뒤로는 ‘농정 실패’, 앞으로는 ‘전망 부재’라는 이중의 장벽에 가로막힌 난처한 형국에 봉착

1-1-2. ‘마을만들기 3주체’의 동반 실패

■ 행정의 정책 실패

○ 농촌마을만들기 문제의 가장 유력한 발원지는 단연 ‘행정’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권리와 책임이 온전히 그곳에 있기 때문

- 농식품부 등 중앙정부나 각급 지자체 등 행정은 농촌마을만들기의 본질적, 궁극적 목적과 목표가 '공동체 활성화'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
 - 그로인해 그동안의 농촌마을만들기는 공동체활성화 보다 생활기반 개선사업 위주의 개별단위 사업에 치중
 - 행정의 농촌마을만들기 정책의 방향과 좌표가 애초부터 잘못 설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표> 농촌마을만들기의 목적

영역 기능	공간(환경)	사람(조직)	관계 (활동.교류)
정주	정주기반의 정비 및 확충	인구유치 및 주민역량 강화	공동체 및 주민활동의 활성화
생산	생산기반 및 경제활동기반의 확충	생산인력의 확보, 경제활동 역량강화	생산활동 및 소득.경제활동의 활성화
여가	문화.여가 기반 확충 및 경관.환경의 개선	문화.여가 수요층의 확대	문화.여가활동의 경관.환경보전활동 활성화

※ 자료 : 조영재 외, 2011년 12월, 충남 희망농어촌마을만들기의 추진모형 및 실천 전략, 충남발전연구원

- 행정은 2000년대 접어들면서 농촌지역개발을 주민 주도의 상향식 개발로 전환하는 등 자구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지지만 실제로는 변화가 미미
 - 여전히 주민 주도가 아니라 공공 주도로 마을사업 현장이 움직여 현장에서 주민의 참여와 역할이 행정에 밀려 제한적이거나 주변적
 - 결국 행정은 사업추진과 사후보고가 용이한 물리적 환경 개선사업에 편향되었고 시설운영 등 사후관리, 후속·연계 지원사업을 따로 챙길만한 여력과 의지는 부족
- 농촌마을 만들기사업이 2년 안팎의 단기사업 위주로 설계되고 집행된 것도 문제
 - 지자체장의 교체 등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연속성이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기간
 - 따라서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부재한 상태로 단위사업 형태의 단기사업이 되풀이
 - 사업비를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존해 지역별로 독자적, 자율적인 사업을 계획하거나 추진할 수 없는 것도 한계
 - 지역 내부에서는 자율적, 창의적 사업을 추진하라는 포괄보조제도의 도입취지에 무색하게 시.군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한 채 기존사업이나 타 지역의 유사사례를 모방하고 답습하는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사례도 만연

- 중앙이나 지역이나 행정 하부에서는 건축, 농정, 도시, 주택 등 각 부서마다 사업이 분산 추진되고 ‘행정 칸막이’로 인한 비효율과 불통의 여지가 상존하는 구조
 - 이는 농촌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의 총괄·기획 기능과 전담부서가 부재하기 때문으로 행정에서 위원장 등 일부 주민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다발
 - 행정편의를 우선하다 마을주민 간 갈등과 공동체 붕괴 빌미까지 제공

■ 주민의 준비 부족

- ‘주민’들이 미처 마을공동체의 사전 준비와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마을 관련 사업이 선정되는 경우가 일반적
 - 마을이 공동사업으로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으려면 최소 몇 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주민은 학습하고 훈련하면서 그동안 교육, 컨설팅 등 행정이나 외부 지원 조직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심과 지원이 선행될 필요
 - 하지만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전무한 마을에 수십억원 규모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지원되는 사례도 흔히 목격되고, 심지어 한번 정책사업을 지원받은 마을이 여러 부처의 다양한 사업을, 그러나 유사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집중적으로 받는 사례도 다발

■ 전문가의 역량 한계

- 행정과 주민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대신 해결해야할 ‘전문가’의 역할과 성과도 행정과 주민의 요구와 기대에 미달
 - 더욱이 2004년 이후 최대 100억원 규모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농촌지역개발관련 전문업체 및 기관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해 전문가의 개념과 관련 컨설팅시장이 교란되는 양상마저 지속
 - 농식품부는 컨설팅업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도 없고 시장 진입 문턱도 여전히 낮아 컨설팅업체의 역량 강화 유도과 시장 공정질서 확립 효과는 미미
 - 기관 인증제, 인증기관 3진아웃제 등을 도입해 농촌지역개발컨설팅 시장의 정도와 정의를 세울 필요

1-2. 귀농촌 지원정책의 한계와 진실

1-2-1. 한국 귀농촌의 현황과 실태

■ 귀농촌의 추이

○ 1998년 IMF환란을 피해 6,409가구가 주로 도피성, 생계형 귀농촌을 감행한 이후 십수년이 지난 2011년 10,503가구, 2012년 27,008가구, 2013년 32,424가구 등으로 폭증현상

- 이는 우리 사회에서 귀농촌은 더 이상 일부 선도자들의 용기있는 선택이 아님을 말해주는 일반적인 사회현상으로, 또 하나의 생활방식의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

<표> 연도별 귀농촌 증가 추이(농식품부)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가구수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10,503	27,008	32,424
누 계	880	1,649	2,534	3,836	5,076	6,830	9,214	11,432	15,512	19,579	30,082	57,090	89,514

■ 귀농촌의 현상의 문제

○ 교육 등 사전준비 미비

- 귀농촌인의 수는 급증하고 있는데 귀농촌인의 70%는 귀농촌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귀농촌'을 하는데,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귀농촌 교육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평가 때문

○ 안정된 소득원 부족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귀농촌 정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영농기반 마련(28.4%), 사업자금 조달(26.3%)을 들고 있으며, 편의시설 부족, 이웃주민과 갈등은 그 다음 문제

<표> 귀농촌 정착 시 애로사항

애로사항	비율(%)
영농기반 마련	28.4
사업자금 조달	26.3
편의시설 부족	12.8
이웃주민과 갈등	11.6
부족한 소득	8.8
과다한 육체노동	7.4
일자리 부족	5.0

※ 자료 : 성주인 외, 2012년, 도시민의 귀농·귀촌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특히 '귀농촌에 실패하고 도시나 타 농어촌지역으로 재이동한 경우'는 일자리 부족(34.6%), 부족한 소득(26.9%)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

- 4명 중 3명에 가까운(71.5%) 귀농촌인이 당장 '먹고사는 절박한 문제'의 장벽에 극복하지 못하고 정착에 실패한다는 것

○ 지역공동체 역할 부재

- 외지인인 귀농촌인과 마을공동체, 지역사회에서 원주민과의 갈등과 불화는 상존하며 귀농촌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농민에 대한 역차별적 특혜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지역의 농민단체와는 집단적으로 충돌할 위험마저 제기

-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귀농촌인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실증적으로 규정하고 설명할 수 있는 성공모델(예 : 귀농인과 원주민 공동의 '공익농업 협동경영체')이 필요

[표] 귀농촌인이 지역사회 적응 역할 조직

구분	순수 민간조직	지자체 연결 민간조직
전통적 지역사회 조직	[A형] 마을대동회, 청년회, 부녀회 등	[B형]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사회, 품목별 연구회, 4-H, 농업인대학, 농업생산법 인 등
귀농촌 관련 조직	[C형] 지역소재 귀농교육단체	[D형] 도시민유치지원사업 관련 결성 귀농인협의회, 귀농·귀촌지원센터 등

※자료 : 김정섭 외, 2012년 9월, 귀농·귀촌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의 구조와 기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2. 한국형 귀농촌의 유형

<표> 한국형 귀농촌의 유형 비교

유형	특징
전업농형	농업을 주업으로 생계를 담보
생태주의형	LOHAS로 지속가능한 삶 실천
마을시민형	사회적 역할로 지역공동체 주체
5도2촌형	주중 도시, 주말 전원생활 병행
휴양형	자연에서 심신을 치료하고 치유
은퇴형	베이비붐 세대의 '인생이모작'

※ 자료 : 정기석, 2013년, 사회경제적 민생 국민농정 대안모델 개발 :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국회사무처

■ 전업농형 귀농촌

- 전적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생계유지를 담보하는 귀농촌 형태로서 농업인으로서의 직업가치를 중요시하는 '경제생계형'으로 달리 표현
 - 4인 가족 월간 생계비는 기본 식대, 광열비(난방비), 자녀교육비 등을 평균적으로 고려할 때 최저 월 150만원은 필요
 - 농지와 주택구입 자금, 농자재비용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3년 정도의 여유자금은 미리 준비
 - 정책적으로는 수익과 소득을 추구하는 귀농촌 방식이니 창업과 소득원 중심의 지원에 집중될 필요

■ 생태주의형 귀농촌

- 최근의 30~40대 귀농촌은 도시에서의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삶을 마다하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찾는 '생태주의자'들이 많음
 - 웰빙을 넘어 로하스(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를 실천함으로써 '나도, 너도, 우리 모두 함께 제대로 먹고 제대로 소비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살자'는 것
 - 도시를 벗어나 농촌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대안가치 추구형'

■ 마을시민형 귀농촌

- 마을공동체, 지역사회에서 외지인이나 주변인이 아닌 주체적인 공동체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자임하는 이타적인 귀농촌인 모델
 - 대안학교 교사, 농산촌유학 활동가 등 교육자 공예가, 작가 등 예술가, 농업회사원, 농산물유통상 등 기업인, 마을사무장, 마을컨설턴트 등 마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농정 공무원 등 지역행정가, 생태건축가, 에너지엔지니어 등 대안기술자 등 교육, 문화, 사회, 생태 등 각 분야에서 다종다양한 인력자원이 농촌지역에는 필요

<그림> 마을시민형 귀농촌 사례



대안학교 교사



문화예술인



농업회사원



마을연구원



농정공무원



농촌사회복지사



도농교류사업가



대안기술자

※ 자료 : 정기석, 2013년, 사회경제적 민생 국민농정 대안모델 개발 :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국회사무처

■ 5도2촌(5都2村)형 귀농촌

○ '5도2촌형(또는 반도반촌형)'은 주중 5일은 일터가 있는 도시에서, 주말 2일은 전원지역의 주택(Second House)이나 별장이 있는 농촌에서 지내는 과도기적인 귀농촌 방식

- 농촌에서는 물론 도시에서의 생활도 생협을 이용하는 등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을 견지하려는 경향

■ 휴양형 귀농촌

○ 특히 현대의학이나 약물로 치유가 안되는 병에 걸린 경우, 심신의 회복과 요양을 위해 귀농촌을 선택하는 경우

- 자연환경이 좋은 산간지대가 최우선 입지조건으로 산촌휴양복지마을 등 주거환경과 사회서비스 분야의 정책적 지원이 결합될 필요

■ 은퇴형 귀농촌

○ 최근 귀농촌 인구 중에는 베이비붐세대 등 5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도전적인 생계형 귀촌보다는 은퇴 후 농촌에서 안정된 인생이모작(Second Life)을 실현하려는 연착륙에 관심

제3장 농촌지역개발사업 조성시설 현황

3-1. 기초생활기반 확충 분야

3-2. 지역소득 증대 분야

3-3. 지역경관개선 분야

3-4. 기타 공유자산

제3장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조성시설 실태

<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사업내용 및 예시

기능별 사업	세부사업	세부 내용
기초생활기반 확충	도로·교통	연결도로, 버스승강장, 주차장, 소형 교량 등
	상하수도	암반관정,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 등
	재해대비	하천정비, 옹벽설치, 안전펜스, 기타 안전시설 CCTV등
	마을정비	빈집정비, 마을재개발, 마을재정비, 신규마을조성, 전원주거단지 등
	복지시설	마을회관리모델링(공동급식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시설, 공동생활홈 등
	문화시설	야외공연장, 시골장터정비, 향토자원정비, 어린이놀이터 등
	운동휴양	운동시설, 레포츠시설, 잔디광장, 산책로, 정자설치 등
	농업기반	기계화 경작로, 소규모 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 등
지역소득증대	소득기반	특산물 공동 가공시설, 공동 집하장, 공동 선별시설, 특산물 공동 판매장, 공동저온저장고 등
	체험관광	폐교활용, 농산어촌체험시설, 야영(캠핑)장, 체험학습장 등
지역경관개선	마을경관	마을안길 가꾸기, 마을숲 조성,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생울타리조성, 마을조형물, 문화자원 복원 등
	생태·환경	생태공원조성, 생태하천정비, 소규모 오폐수처리시설, 소규모 쓰레기처리시설, 소규모 대체에너지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기반	가로경관정비, 안내간판설치, 집단적인 간판정비, 재래(5일) 시장정비 등

※ 자료 :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2014년, 농식품부

<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분야 및 종류

사업분야	사업종류
● 기초생활기반확충	- 지원대상 :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 도로·주차장, 상·하수도, 재해대비, 중심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시설, 중심지-배후마을간 접근성 개선 및 주민이

	체감하는 작은 목욕탕 등
● 지역소득증대(선도지구만 해당)	- 지원대상 : 지역주민의 공동체 소득증대를 위한 6차 산업화 기반시설 ▪ 로컬푸드 관련 가공시설, 선별·집하장, 공동저온저장고, 판매장 등
● 지역경관개선	- 지원대상 :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및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 ▪ 중심지 가로경관 개선, 향토·전통시장 간판정비, 소규모 근린공원 등 ▪ 총 사업비 20% 이상 투자




※ 자료 :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2014년, 농식품부

3-1. 기초생활기반 확충 분야

기능별 사업	세부사업	세부 내용
기초생활기반 확충	도로·교통	연결도로, 버스승강장, 주차장, 소형 교량 등
	상하수도	암반관정,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 등
	재해대비	하천정비, 옹벽설치, 안전펜스, 기타 안전시설 CCTV등
	마을정비	빈집정비, 마을재개발, 마을재정비, 신규마을조성, 전원주거단지 등
	복지시설	마을회관리모델링(공동급식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마을회관 다목적화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시설, 공동생활홈 등
	문화시설	야외공연장, 시골장터정비, 향토자원정비, 어린이놀이터 등
	운동휴양	운동시설, 레포츠시설, 잔디광장, 산책로, 정자설치 등
	농업기반	기계화 경작로, 소규모 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 등

<표> '기초생활기반 확충' 시설 사례

기능별 사업	세부사업	세부 내용	사례
-----------	------	-------	----




기초생활 기반 확충	복지시설	다목적회관	 <p>옥천 한두레권역-커뮤니티센터</p>
		마을도서관	 <p>형성 공근금계권역</p>
		건광관리시설	 <p>남해 앵강다숲권역(야외)</p>


		마을(복지)회관	 논산 대둔산권역
	문화시설	야외공연장	 진안 능길권역
	운동휴양	운동/레포츠 시설	 청양 칠갑산권역-축구장
	기타	도로.교통/ 상.하수도/재해대비/마을정비 관련	


3-2. 지역소득 증대 분야

기능별 사업	세부사업	세부 내용
지역소득증대	소득기반	특산물 공동 가공시설, 공동 집하장, 공동 선별시설, 특산물 공동 판매장, 공동저온저장고 등
	체험관광	폐교활용, 농산어촌체험시설, 야영(캠핑)장, 체험학습장 등

<표> '지역소득 증대' 시설 사례

기능별 사업	세부사업	세부 내용	사례
지역소득 증대	소득 기반	특산물 공동가공 시설	 <p>황성 공근금계권역-누룽지가공공장</p>
		공동집하장/선별장	 <p>청양 칠갑산권역</p>
		공동판매장	 <p>충주 달두루권역-농산물 직판장</p>


		공동저온저장고/다목적창고	 <p>진안 능길권역</p>
	체험관광	마을조형물	 <p>단양 한드미권역</p>
		생태학습장/야생화단지	 <p>화천 토고미권역- 생태학습장</p>

		폐교리모델링	
	기타	농기계창고 등 농업기반 시설 등	예천 회룡포권역 -폐교 리모델링

3-3. 지역경관개선 분야

기능별 사업	세부사업	세부 내용
지역경관개선	마을경관	마을안길 가꾸기, 마을숲 조성,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생울타리조성, 마을조형물, 문화자원 복원 등
	생태·환경	생태공원조성, 생태하천정비, 소규모 오폐수처리시설, 소규모 쓰레기처리시설, 소규모 대체에너지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기반	가로경관정비, 안내간판설치, 집단적인 간판정비, 재래(5일) 시장정비 등

<표> '지역경관 개선' 시설 사례

기능별 사업	세부사업	세부 내용	사례
지역경관 개선	생태환경	생태공원	 화천 토고미권역-생태학습공원

		대체에너지 시설	 <p>옥천 한두레권역-태양광발전소</p>
	도시경관	테마가로 정비/가로경관	 <p>진안 백운면 소재지-공공디자인</p>
		안내간판	 <p>옥천 한두레권역</p>
	기타	마을숲 등 마을경관 시설/ 오페수처리 등 생태.환경 시설/ 5일장 정비 등 도시경관 시설	

3-4. 기타 공유자산

<표> '기타 공유자산' 시설 사례

폐교	체육/휴양시설	관공서
<div data-bbox="229 506 561 819">  </div> <div data-bbox="229 819 561 929"> <p>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C.B.센터)- 전 삼기초교</p> </div>	<div data-bbox="574 506 967 819">  </div> <div data-bbox="574 819 967 929"> <p>무주읍 공공건축- '등나무운동장'</p> </div>	<div data-bbox="979 506 1380 835">  </div> <div data-bbox="979 835 1380 929"> <p>진안마을만들기센터 및 진안마을주식회사-전 농업기술센터</p> </div>

제4장 농촌지역 유희시설의 실태

- 4-1. 농촌지역개발사업 유희시설 실태
- 4-2. 기타 농촌지역 공유자원 현황
- 4-3. 유희시설 지역공유 사업 사례

제4장 농촌지역 유희시설의 실태

4-1. 농촌지역개발사업 유희시설 실태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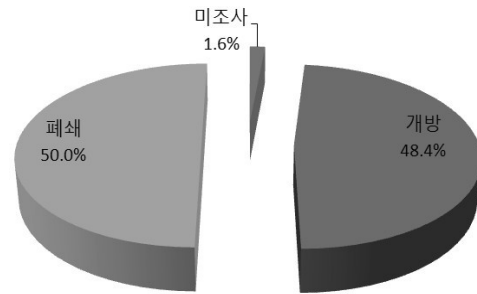
■ 시설 활용 실태 조사 및 분석

○ 한국농어촌공사(연구원)은 2011년까지 준공된 89개 권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하드웨어 운영 실태를 정량적으로 분석

- 조사대상 권역의 50%에 달하는 시설물이 폐쇄상태인 것으로 조사

<표> 준공 하드웨어 운영 여부

운영	갯수	비율(%)	주요시설
개방	187	48.4	마을회관, 농산물가공시설, 저온저장고
폐쇄	193	50.0	체험관, 문화복지센터, 방문객센터
미조사	6	1.6	
합계	386	100.0	



○ 건축물의 활용도 분석

- 개방된 시설물의, 비율은. 48.4%, 폐쇄된 시설물은 50.0%

○ 기본계획서의 준수 여부 분석

- 기본계획을 준공 시까지 준수한 시설물은 72.8%, 시행과정에서 변경된 시설물은 24.6%

○ 운영여부에 따라 A등급 시설물은 46.4%, B등급 29.0%, C등급 23.6%로 조사

○ 시설물별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이 가장 다양

3) 농식품부, 한국농어촌연구원, 2012년 12월, 마을종합개발사업 준공권역 하드웨어 구축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수립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공장->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순

■ 유희시설화 원인 진단

- 운영 부실 : 권역간 연계 미흡, 역량 및 의지 부족, 프로그램 미운영, 운영관리 시스템 부재, 공동시설 규모 과다, 주체 간의 갈등 등이 원인
- 건축물의 방치 : 소득시설의 유희화, 체험관의 낮은 활용도, 수익이 낮아 유지관리의 어려움, 체험 프로그램 부재, 운영목적의 불명확, 시설물의 방치 등으로 조사
- 소득사업의 부적정 사용 :시설의 사유화, 소득법인 미설립, 권역기금 미납부, 소득기반시설의 자부담 미징수, 소득시설로 미분류, 회계처리 불투명, 소득사업을 체험사업으로 분류 등의 사례
- 허가용도 외 전용 : 타 용도로의 임대식당 운영, 타 용도로의 전용시설의 사유화 등

■ H/W 활성화 방안 제시

- 사업전반에 걸친 계획의 일관성 및 전문성 제고
- 사업추진의 단순화
- 건축법 용도분류의 준수
- 사업매뉴얼의 융통성 확보
- 지역역량강화사업 재편
- 건축물 규모의 적성성 산출
- 전용시설의 적법성 유도 등.

4-2. 기타 농촌지역 공유자원 현황⁴⁾

■ 최근 농촌의 자연환경, 여가 및 문화 등 농촌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활성화에 관심이 고조

- 이에 정부는 사라져가는 전통 농어업 자원을 발굴·보전·전승하기 위해 농어업유

4) 김경덕 외, 2013년 12월, 농촌지역 공유자원의 이용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제도를 도입·시행하거나 농촌지역 전통자원의 지역별 브랜드화, 관광자원 활용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미지 제고를 기대

○ 전통적 농촌에서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던 수리계·공동방목장·산림계·지역공동브랜드 등이 농촌 지역공동체의 생활, 경제에 기여

■ 공유자원의 이용방식은 개인에게 불하하는 사유권화, 국가와 공공부문이 관리하는 국유화로 구분

○ 사유화는 자원배분의 비효율화, 국유화는 이행비용 과다 등의 우려가 있으나 공유자원의 공동체적 이용은 지역주민 소득 제고, 취약주민 보호 외에 공동체적 문화유산 보전 및 환경보호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

■ 공유자원의 효율적, 안정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필요

○ 중장기 투자, 임차료 지원, 임차기간 연장 등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공유자원의 경영기반 조성

4-3. 유희시설 지역공유 사업 사례

■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례 : 진안마을주식회사

○ 진안마을 주식회사는 전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건물 등 시설을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얻어 사무실, 가공장 등으로 개조해 활용

○ 2011년 와룡마을 등 진안군의 30개 마을이 공동출자,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

- 마을주민 및 단체 130명이 자본금 1억5000만원 조성

- 2013년말 상근 고용인원 6명, 일용직 4명으로 10억 원의 매출

○ 진안군 학교급식 지원센터로 지정, 군내 전 학교에 친환경 급식재료를 공급하고 있고, 북부 마이산 관광단지내 농촌테마공원에 로컬푸드 식당과 직매장 운영, 잡곡 가공장, 농가공장, 발효 체험장 등의 다양한 6차 산업화 사업을 진행

- 산나물, 잡곡 등 독자브랜드 상품 개발 및 판매 사업도 추진중이며 소농, 가족농 등의 생산자 교육 및 조직화도 진행



진안마을주식회사



친환경 학교급식 유통팀 사무실



농식품 가공장 등 사업장

제5장 '지역공유 사회적경제자산은행' 설립 및 운영 방안

5-1. '농지은행' 운영 사례

5-2. '지역공유 사회적경제자산은행' 운영 방안

제5장 '지역공유 사회적경제자산은행' 설립 및 운영방안

5-1. '농지은행' 운영 사례⁵⁾

5-1-1. 농지은행' 설립 목적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은 농지의 수급조절을 통한 농지시장의 안정, 농지소유제한 완화에 따른 농지의 보전 및 관리, 도시민의 귀농촉진 등을 목적으로

○ 농지임대 수탁사업 : 임대차가 허용된 농지와 노동력부족·고령화로 자경하기 어려운 자의 농지·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을 임대수탁 받아 전업농 중심으로 임대, 효율적·안정적 관리

- 수탁농지 등은 전업농 및 신규 창업농 중심으로 임대하여, 규모확대, 임차인의 안정영농, 농지시장 안정 도모

<그림>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



※ 자료 : 농지은행 <http://www.fbo.or.kr>

○ 농지매도 수탁사업 : 농지매도 희망자의 원활한 농지매도를 지원하여 농지시장을 안정

- 농지매도 희망자 및 농지처분명령 유예제도 도입에 따른 매도 희망자의 농지를 수탁받아 매도 촉진

- 수탁농지가 전업농 등에 매도되도록 하여 영농규모 확대, 농지 이용을 증대, 농업구조개선 촉진

5) 농지은행 <http://www.fbo.or.kr>

<그림> 농지은행의 '농지매도 수탁사업'



※ 자료 : 농지은행 <http://www.fbo.or.kr>

○ 특히 농지은행을 통한 귀농촉진 사업은 귀농을 원하는 도시의 청년, 직장인, 은퇴자들이 농지와 농가주택, 부속 농업시설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하고자 할 경우, 이에 관한 매물을 공급하거나 알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귀농촌과 농지의 수요를 상호 연결하는 효과

5-1-2. 농지은행 운영 방안

<표> 농지은행의 운영 방식

구분	농지 매입사업	농지 매도사업	농지 임대차사업
대상 농지	<p>■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또는 밭. 다만,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다음 논 또는 밭도 매입 가능</p> <p>- 경지정리된 논 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p>		<p>■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논 또는 밭</p> <p>-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이용현황(사실상 논·밭)을 기준으로 임차</p>
대상자	<p>①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p> <p>② 전업(轉業)·이농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p> <p>-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p> <p>③ 고령 또는 질병</p>	<p>○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64세(2014년 195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하로서 다음의 경영규모를 갖춘 자</p> <p>- 경영규모가 논 1.5ha 또는 밭1.0ha(시설작물 0.3ha) 이상인 자</p> <p>- 다만,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에 전업</p>	<p>■ 임차대상자</p> <p>○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소유자를 우선으로 하되 다음 순위에 따라</p> <p>① 전업(轉業)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이 경우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농지를 우선 임차</p> <p>②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p>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임대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1일 기준 만64세(2014년도의 경우 195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하로서 다음의 경영규모를 갖춘 자 - 경영규모가 논 1.5ha 또는 밭 1.0ha(시설작물 0.3ha)이상인 자 - 다만,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에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에는 논 또는 밭 경영규모가 1.0ha 이상인 자 -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5년 이내의 자 ○ 영농복귀자
	<p>등으로 은퇴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p> <p>-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을 우선 하며,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p>	<p>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에는 논 또는 밭 경영규모가 1.0ha 이상인 자</p> <p>○ 영농복귀자</p> <p>-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轉業)한 자로서 전업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여 벼와 밭작물을 주작목으로 경영할 자</p> <p>○ 벼 또는 밭작물을 주작목으로 설립된 농업법인</p>	<p>공사에 농지를 임대하고 전업(轉業)한 자로서 전업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여 벼와 밭작물을 주작목으로 경영할 자</p> <p>이외의 지원 대상자는 농지매매사업과 같음</p>

※ 자료 : 농지은행 <http://www.fbo.or.kr>

5-2. '지역공유 사회적경제자산은행' 운영 방안

5-2-1.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 설립 제안

■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의 설립 목적

○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의 지원으로 조성되었으나, 당초의 사업목적이나 기대효과와는 달리 운영성고가 부실하거나 부진해 유휴시설화된 각종 시설(기초생활기반 확충 관련, 지역소득 증대 관련, 지역경관 개선 관련 등) 대상

-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을 통한 임대차 및 매매사업을 통해 해당시설을 재활용하고 마을·지역공동체사업의 활성화를 촉진

■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의 운영 방식

① 자산 임대 및 매도 신청

- 자산 소유한 농업인, 농업법인, 지자체 등이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에 신청

② 자산 임차 및 매입 신청

- 자산을 임차, 매입하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에 신청
- 이때, 임차료 및 매입대금 지원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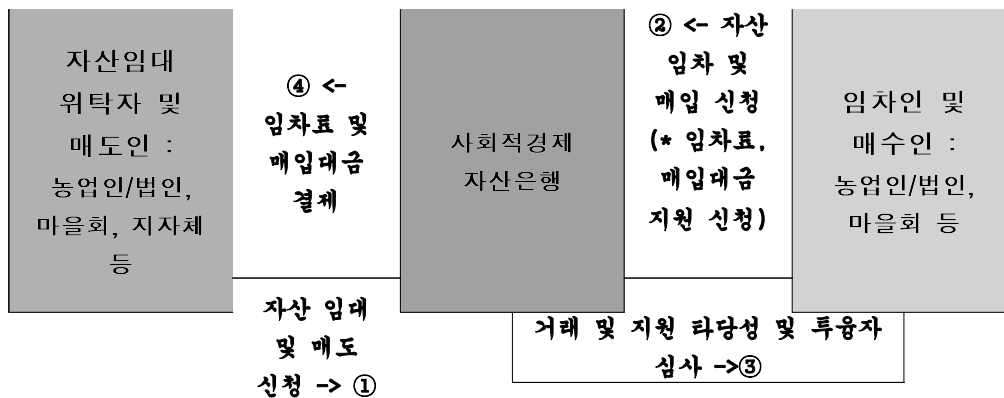
③ 거래 및 지원 타당성 심사

- 임대차, 매매거래 타당성 심사 : '공익농업 협동경영체' 여부, 사업 및 창업계획 적정성 여부
- 임차료, 매입대금 지원 타당성 및 투·융자 심사 병행

④ 임차료 및 매입대금 결제

-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을 통해 임차료 및 매입대금 결제

<그림>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의 운영 흐름도



<표> '지역공유 사회적경제자산은행' 운영 방식(안)

구분	자산 매입사업	자산 매도사업	자산 임대차사업
대상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각종 유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기반 확충 관련 - 지역소득 증대 관련 - 지역경관 개선 관련 ■ 기타 공유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폐교, 관공서 등 		
거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 자산을 매도하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마을회, 지자체 등 - 농촌지역개발사업 등 마을·지역공동체사업 운영 및 시설관리 책임자(소유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형태로 '공익농업 협동경영체'를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마을회 등 ■ '공익농업 협동경영체'를 신규 창업하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마을회 등 	
지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비 지원 ■ '귀농 창업지원사업' 사업비 지원 		

5-2-2. 해외 사례 : 영국 '사회적경제 기반 마을공동체' 지원 사례

■ 영국에는 '마을과 사회적 경제 결합'의 대표적모델이 있는데, 주민 중심의 마을만들기 사업체가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띠면서 수익을 내고 지속가능성을 갖는 방식

○ '에셋 매니지먼트(Asset Management)는 주민 중심의 마을만들기 조직이 단순한 커뮤니티 조직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실증

- 이는 정부나 지자체, 민간의 자산을 이전받아 지역공동체를 위한 수익 모델로 활용하는 게 특징

- 런던의 해크니 협동조합 개발회사(Hackney Cooperative Development)는 통후 추 한 알을 주고 구청 소유의 건물을 이전받아 현재는 80여 개의 공간을 임대

- 헐(Hull) 지역의 굿윈 개발신탁(Goodwin Development Trust·DT)은 버려진 요양원·슈퍼마켓·펍(Pub)을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재건

- 런던 올드 스트리트(Old Street)에 위치한 로컬리티(Locality)는 헐과 같은 마을만들기 사업체(DT)들의 연합

- 영국 전역에 750개의 회원단체가 있고, 자산가치는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 3840억 원)에 달하며 상근 직원은 50명

- 2011년 4월에 설립된 '로컬리티(Locality)'에서 하는 개발 신탁(Development Trust)의 가장 큰 특징은 공동체에 이익되는 땅·건물 등의 자산을 공동체가 매입 우선권을 갖는다는 점

- 구청 땅·빌딩 중 안 쓰는 공간을 커뮤니티가 이윤을 창출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구청에서 공짜로 대여

- 커뮤니티가 대출을 받거나 지원금 받아서 직접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홀리 아일랜드'라는 농촌지역에서는 이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별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 커뮤니티가 아주 오래된 호텔을 사서 여행객 센터와 주거공간을 만들고 주변에 집들을 건축

- 하 부둣가 지역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의 사용하지 않는 부두를 커뮤니티에 사용하도록 허락

- 이렇게 커뮤니티가 자산을 가지게 되면 커뮤니티 사업도 생기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도 시작되고,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지면서 주민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고 있음

- 특히 스코틀랜드에서는 2003년 커뮤니티에 이익이 되는 토지나 건물이 매물로 나올 경우 커뮤니티에서 가장 먼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Land Reform)을 제정

■ 잉글랜드에서도 2011년 '로컬리즘 액트(Localism Act·지역주권법)'라는 법률이 제정

○ 커뮤니티 가치가 있는 자산을 매각할 때, 토지 소유자는 6개월 동안 이를 개인 소유자에게 팔 수 없고 커뮤니티가 돈을 모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 로컬리즘 액트는 정부와 시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법안이다. 로컬(지역)에서 해결책을 생각해보게 하면서, 커뮤니티가 서비스 제공이나 토지 소유 과정에서 더 많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함

제6장 '공익농업 협동경영체' 중심 연계 지원방안

6-1. '공익농업 협동경영체' 조직화 및 운영 모델

6-2. '공익농업 협동경영체' 중심 사회적경제자산은행 활용 방안

제6장 '공익농업 협동경영체' 중심 연계 지원방안

6-1. '공익농업 협동경영체' 조직화 및 운영 모델

6-1-1. '지역단위 공익농업 협동경영체' 발굴 및 지원

1) 사업 배경

■ 지역 고유의 농업 및 농촌자원 사업화 및 산업화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지역단위 공익농업 협동경영체' 고유모델 개발 및 정립 필요

* '지역단위 공익농업 협동경영체' : 기초지자체 등 지역단위로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서로를 위해, 농촌마을공동체를 위해, 보유하고 발굴한 농촌의 특화자원(농업, 향토, 문화, 생태 등)을 활용해 소득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서비스를 위해 더불어 설립하고 경영하는 지속발전가능한 '지역단위 네트워크형, 사회적경제조직 형태의 공동사업체'

2) 사업 목적

- 지자체 고유 농업·농촌자원 제품화 지원 '신기술 연구·개발(R&D) 지역단위 공익농업 협동경영체' 발굴 및 지원
 - 농업·농촌 자원 고부가가치 산업화 지원 신기술 및 연관 모델 연구·개발(R&D) 중심
- 농업·농촌자원 상품화 목적 '1차 생산 및 2차 가공 상품화 지역단위 공익농업 협동경영체' 발굴 및 지원
 - 농업·농촌자원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성과물의 상품화 및 사업화 중심
- 농업·농촌자원 6차 산업화 연계 '3차 유통 및 체험관광 지역단위 공익농업 협동경영체' 발굴 및 지원
 - 농업·농촌 자원 6차 산업화를 위한 상품의 유통 및 프로그램 체험관광 분야 연계
- 농업·농촌 정주여건 기반 '사회적서비스 지역단위 공익농업 협동경영체' 발굴 및 지원
 - 문화, 교육, 의료, 복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농업·농촌 정주여건 기반 사회적서비스

■ ‘지역단위 공익농업 협동경영체’ 중심’ 농촌생태순환마을 모델(살림마을) 개발 및 실증

<그림> ‘지역(지자체)단위 공익농업 협동경영체’ 구성(Network) 모델



3) 사업 과제

■ ‘지역단위 공익농업 협동경영체’ 발굴 및 선정

○ 농업·농촌자원의 산업화를 위해, 연구·개발(R&D), 농업·농촌자원 생산, 농업·농촌자원 가공, 농업·농촌자원 유통, 농업·농촌자원 체험관광, 농업·농촌 기반 사회적서비스 등 농촌기반사업 특유의 농업·농촌사업을 농촌지역에서 주로 영위

■ 발굴/선정 협동경영체의 마스터플랜 수립 컨설팅 및 경영자문 멘토링 서비스

- 지속발전가능한 수익기반 창출 구조와 자립경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성 사전 진단 및 최적의 사업구조 재설계를 실시
- 마스터플랜 사업계획 수립 등 관련 컨설팅 및 경영 자문 등 관련 멘토링 서비스 제공
-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커뮤니티 비즈니스, 협동조합 등), 농업·농촌사업, 농촌지역개발사업 등 관련 연계사업 후속 지원

4) 추진방향(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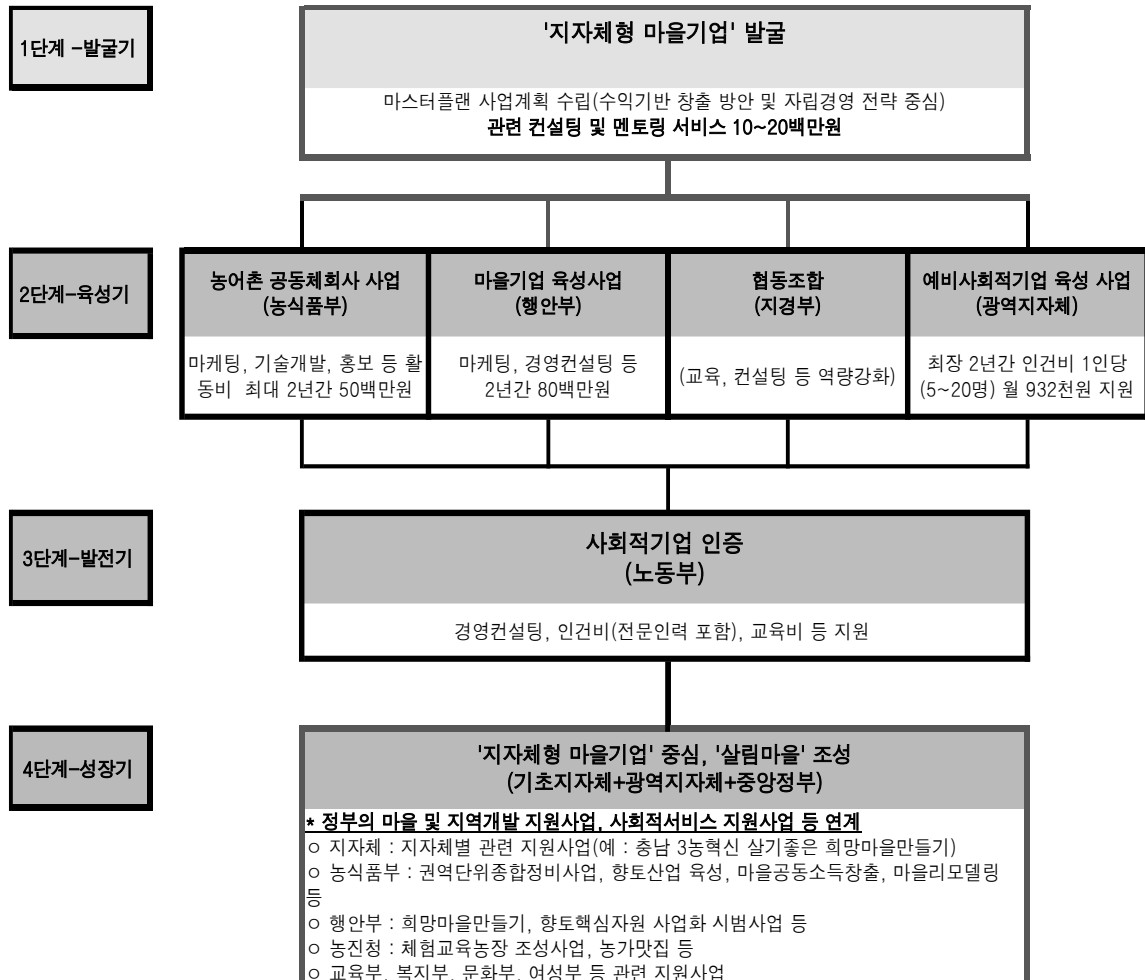
■ 농업·농촌 자원 사업화(R&D, 생산, 가공, 유통, 체험관광 등) 및 농업·농촌 기반 사회적서비스를 사업목적으로 구성, 운영되는 선도적 '지역단위 공익농업 협동경영체'를 상향식으로 공모·발굴

■ '지역단위 공익농업 협동경영체'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연구·개발 단계를 비롯하여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유통 및 체험관광 분야가 융·복합된 6차형 농업·농촌사업, 농업·농촌기반 사회적서비스를 예측가능하고 지속발전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성 사전 진단 및 최적의 사업구조 재설계를 주요목적으로 하는 마스터플랜 사업계획 수립(수익기반 창출 방안 및 자립경영 전략 중심) 관련 컨설팅 및 경영자문 등 멘토링 서비스 제공

■ 지자체가 발굴한 '지역단위 공익농업 협동경영체' 선정업체에 대해, 농식품부 농어촌 공동체회사, 행자부 마을기업, 기재부 협동조합, 각 광역지자체별 예비사회적기업, 노동부 사회적기업, 부건복지부 자활기업 등 연계가능한 관련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사업 후속 지원

■ 단계적(발굴기-> 육성기-> 발전기->성장기별), 중장기적(향후 10개년)으로 농식품부, 행자부, 농진청 등 중앙정부, 각 지자체별 관련 중·대 규모 농림사업, 농촌지역개발사업 등, 기재부, 문화부, 교육부, 복지부, 환경부, 여성부 등 관련 정부 지원사업 후속 연계 지원

<그림> '지역단위 공익농업 협동경영체(예 : 지자체형 마을기업)' 단계별 발굴·연계지원 전략



6-1-2. '지역단위 공익농업 협동경영체' 발굴 및 지원사업 시행전략

1) 사업내용

■ 지자체 고유 농업·농촌 자원 사업화 및 산업화, 농업·농촌기반 사회적서비스를 위해 연구·개발(R&D), 1차 산림자원 생산, 2차 산림자원 가공, 3차 산림자원 유통 및 체험관광, 사회적서비스 등이 융복합된 6차형 농산업 형태와 방식의 '지역단위 공익농업 협동경영체' 발굴

- 수익기반 창출 구조 및 자립경영 기반 도출 및 확보 위한 마스터플랜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 및 관련 경영자문 멘토링

○ 노동부, 행자부, 농식품부 등 중앙정부 및 전북도의 관련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농식품부, 행안부, 농진청 중앙정부, 전북도의 관련 농림사업, 농촌지역개발사업 등, 기재부, 문화부, 교육부, 복지부, 환경부, 여성부 등 관련 정부지원사업 후속 연계 지원

2) 사업대상 및 요건

■ 농업·농촌 자원 사업화 및 산업화, 농업·농촌 기반 사회적서비스를 사업목적으로 구성된 농촌지역 소재 사업체

- 민법상 법인, 조합
- 상법상 회사
- 협동조합
- 마을회,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부 마을기업 선정 대상요건에 준함

3) 발굴대상 사업유형

사업유형	발굴 목표
농업·농촌자원 제품화 지원 <신기술 연구·개발(R&D)>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자원 고부가가치 산업화 지원 신기술 및 연관 모델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농업·농촌자원 상품화 목적 <1차 생산 및 2차 가공 상품화>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자원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성과물의 상품화 및 사업화 지원
농업·농촌자원 6차 산업화 연계 <3차 유통 및 체험관광>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자원 6차 산업화를 위한 상품의 유통 및 프로그램 체험관광 분야 연계 지원
농업·농촌 기반 <사회적서비스>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교육, 의료, 복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농업·농촌 정주여건 기반 사회적서비스 주제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구분	내역	사업비
컨설팅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단위 공익농업 협동경영체’ 중장기 마스터 플랜 사업계획 수립 - 수익기반 창출 방안 및 자립경영 전략 도출 중심 	80%
멘토링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재무, 마케팅, 생산 등 지자체 마을기업 경영 기본 교육 및 관련 자문 서비스 ▪ 후속 연계 지원사업 발굴 및 준비 자문 서비스 	20%

자금지원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자산은행'의 자산 임차료 ▪ '사회적경제자산은행'의 자산 매입대금 	* 장기저리 투·융자
---------	---------------------------------------------------------------------------------------------------------	-------------

6-2. '공익농업 협동경영체' 중심 사회적경제자산은행 활용 방안

6-2-1. 마을·지역공동체사업 연계 활용 방법

■ '공익농업 협동경영체' 중심 마을·지역공동체사업 실행 방법

○ 목표 및 필요성

- 마을 및 지역의 시설 관리 및 활용,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개발, 권역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을 유치,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사업조직 구축





○ 기본방향

- (농촌)마을 및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능력 있는 주민과 인근 지역이 함께 사업개발

○ 사업계획

-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와 사례를 통한 주민교육, 권역 내, 인근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 발굴, 추진 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발굴,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한 컨설팅

■ '공익농업 협동경영체'의 유형별 현장 사례

1. 경제 마을기업	2. 교육 마을기업	3. 문화 마을기업	4. 생태 마을기업
 <p>마을농장-창원 다감농원</p>	 <p>마을학교-영양 우리손배움터</p>	 <p>마을예술단-원주 신화마을네트워크</p>	 <p>생태건축단-진안 스트로베일건축연구회</p>

			
마을공장 -횡성 공근리 누룽지공장	마을연구소-완주 농촌살림연구소	마을문화원-하동 지리산학교	대안기술센터-가평 연세대CT연구단
			
마을가게-남원 실상사 느티나무	지역학교-강화 백일학교	마을공방-단양 방곡도예촌	대안대학-함양 온배움터
			
지역유통-진안 로컬푸드사업단	체험마을-화천 토고미마을	마을조사단-울주 마을문화조사단	사회복지원-영광 여민동락
			
농장마을-옥천 산계뜰친환경영농조합	교육마을-금산 간디학교 숲속마을	마을박물관-진안 학선리마을박물관	마을연구소 : 무주 마을연구소

※ 자료 : 정기석, 2011년, 마을을 먹여살리는 마을기업, 이때진

■ 농촌지역 유희시설 공유 및 활용 실행 모델 개발

- 농촌지역 각종 유희시설의 농촌지역개발사업 등 마을공동체사업 연계 및 활용방안 개발
- 농촌지역 유희시설의 귀농촌인 및 원주민의 마을공동체사업 활용 및 운영방안 개발

<표> 유희시설을 활용한 적합·유망 마을공동체사업의 유형(모델)

분 야	사업과제		사업내용
경 제 마 울	마을 벤처	마을농장	친환경임산물생산사업(1차)
		마을공장	고부가임산물가공사업(2차)
		마을가게	도농직거래유통(3차): 현지직판장->마을시장 및 LocalFood시스템 연계/확장
		마을공원	도농교류 체험관광 사업(3차 → 6차)
	마을 시장	마을은행	노동력매개마을화폐(Lets)발생 및 거래 → 대안금융기관
		마을장터	현물, 상품, 인력(품앗이)시장
생 태 마 울	마 울 R & D 센터	마을발전소	태양광, 열, 바이오매스,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
		마을연구소	친환경농사, 생태건축, 농촌R&D 등 농업 및 농촌지역 연구 및 활용
	마을체험 캠프	산촌캠프	산촌체험, 임업체험, 산촌공동체생활체험, 산촌역사문화체험 등
		자연캠프	산골체험, 하천체험, 경관답사체험 등
교 육 마 울	마을학교	어린이학교	산촌유학, 방과후학교 등 유소년 ~ 청소년대상 대안교육 프 로그램
		어른학교	교사학교, 지역학교 등 성인대상 지도자교육 프로그램
	마을학원	마음학원	마음공간(명상), 생각공간(문학) 등
		몸학원	몸짓공간(춤), 손짓공간(공방,그림), 소리짓공간(노래) 등
생 활 마 울	마을생활 원	마을펜션	마을식당/Café, 게스트하우스 등
		마을회관	마을공동 편의시설(빨래방, 찜질방, 목욕탕) 등
	마을문화 관	마음문화관	마을도서관, 마을박물관 등
		몸문화관	마을공연장, 마을출판/신문사 등

6-2-2. '마을단위 농업공동체' 연계 활용 방법⁶⁾

■ 마을단위 농업공동체의 필요성

○ 영세 분산 필지의 농업구조 하에서 개별경영의 규모화에는 한계가 있고 설사 규모를 확대해도 효율적 경영은 어려움

6) 농식품부, 2010년 12월, 마을단위 농업공동체 시범사업 추진방안

- 개별경영 단위의 규모화로는 농업의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게 경험이고 중론
- 지역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복합화·다각화 할 필요가 있는데, 복합화·다각화의 경우 개별경영보다 다수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조직경영'방식이 유리할 것
- 이처럼 개별경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마을단위 영농활동의 조직화, 공동 경영을 통해 범위·규모의 경제 활동이 가능, 개별 경영체의 영세성이 극복

■ 마을단위 농업공동체 개요

- '마을단위 농업공동체'는 "농업비중이 높은 마을단위로 공동 영농·판매 등을 수행하는 지역농업조직을 구성하고, 지역경제의 구심체로 육성"하는 것
 - 우선 조직화를 통해 지역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지역성을 확보
 - 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농협·농업법인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공동성도 도모
 - 나아가 자립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경영방식으로 수익성도 추구
 - 형태는 민법상 법인·조합, 농업법인,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으로 확대가 가능

■ 기대효과

- 마을단위로 농지의 단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지규모화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지역의 농지 보전과 관리에도 효과적
- 또 영세한 농가가 공동으로 조직화하면 농업의 지속성도 증가한다. 단기적으로 농업생산 유지를 통해 경작포기지 발생을 방지
 - 장기적으로는 지역단위의 후계자 확보대책으로 기능
- 농지의 단지화, 농기계 공동이용으로 비용도 절감
 - 일본의 경우, 평균 0.8ha(벼 48a, 콩 32a)의 경지면적을 가진 37호(총 면적 30ha)가 각각 개별경영을 한 경우의 전체 비용은 121,400천엔이나, 마을영농의 경우 개별경영의 45%(55,000천엔) 수준으로 비용이 절감된 사례를 확인

■ 조직화 유형별 모델

▶ 생산자 조직 주도형

- 개별농가로서 담당하기 어려운 생산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직화를 통해 실행하는 생산 단계의 조직화 유형

<p>○ 주로 농협의 계통출하를 목적으로 하는 품목조직이나 공동출하, 가공, 유통을 위한 생산자 모임이 주도</p> <p>○ 예: 익산 한그루영농조합법인(소수 전업농 중심의 수도작 단지), 의성 의로운 쌀 생산자연협회(작목반 연합회 중심의 수도작 단지)</p>
<p>▶ 농협 주도형</p> <p>○ APC, RPC를 중심으로 유통 혹은 생산 부문의 규모화·계열화를 추구하는 지역농협 중심의 조직화 유형</p> <p>○ 예: 용인 원삼농협(농협 중심의 친환경쌀 생산·유통 단지)</p>
<p>▶ 지자체 주도형</p> <p>○ 지자체의 참여는 중앙정부로부터 투입되는 자금이나 제도를 지역(마을단위)과 효과적으로 결합시키는 유형</p> <p>○ 지자체가 직접 유통 등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출자를 통해 경영에 참여하는 사례</p> <p>○ 예: 안성마춤클러스터(지자체 주도의 지역특화작목 중심 생산·유통조직)</p>

<표> 조직화 유형별 경영주체의 경영적 특성

	생산자 조직형 I (익산 한그루 영농조합)	생산자 조직형 II (의성 의로운쌀 생산자 연합회)	협동조합 조직형 (용인 원삼농협)	지자체 주도형 (안성마춤클러스터)
조직화의 계기	농작업의 효율화 및 비용절감	의성쌀의 브랜드 기반 강화	친환경업지의 이점을 살린 브랜드 창출	브랜드 마케팅 및 연합체계 구축
사업 내용	쌀, 생산의 공동화	쌀 생산기술협약, 집단계약 재배	친환경농업생산 및 전용 RPC	농특산물의 생산·유통
발전 과정	친목모임→공동작업→법인화·농지 집산화→소포장 브랜드 개발 검토	면단위 작목반→쌀브랜드 육성사업→6개면 농가조직화→농법통일→RPC와 집단계약재배→조합공동사업법인과 계열화 추진	친환경농법개발→계약재배→가공·유통시스템 구축→타작목 확대 및 지역 환원사업 추진	산지유통 전문조직 선정, 축산물 브랜드업체 선정→브랜드 개발→브랜드 품목확대→농협공동사업법인→안성마춤 학교개설 및 학교급식과 연계
경영 규모	쌀 재배단지 264ha, 우리밀 재배단지 100ha	재배단지 6개면 3,100ha	농가 200호, 친환경 재배면적203ha	농가조직과 : 2,334호(전체의 22%)
관련 조직과의 관계	농촌진흥청 우리밀단지, 전북대 컨설팅	행정의 친환경 농자재지원, 농촌진흥청 들녘별 최적경영체,	경기농업기술원 MOU	기술개발: 농축산물 종합안전센터, 환경대학, 호서대학, 농협중앙회 축산

		농협RPC와 계약재배		연구소 생산: 지역농협 유통: 농협공동사업법인
경영 성과	쌀 생산비 25% 절감	시중가보다 40kg 가마당 2천원 높 음	친환경 농업생산· 유통주체	농가조직화 참여 확대 농가소득 증대(전 년대비 38%)
향후 계획	농지의 집단화, 쌀 판매기능 강화	의성쌀의 홍보 및 직판활동 추진	지역순환농업 체 계구축	생산에서 소비까지 브랜드 마니아

※ 자료 : 농식품부, 2010년 12월, 마을단위 농업공동체 시범사업 추진방안

■ 국내외 정책 사례

▶ 국내 사례

○ 홍성환경농업마을 영농조합법인

- 유기농 쌀생산과 도농교류 실시
- 생산은 개별로 실시하고, 자재구입과 농산물 판매, 교육 등은 조합이 담당하는 '부분적 공동경영'

○ 순천농협 직영농장

- 농협이 직영농장을 운영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
- 농협이 시설과 노지채소 45ha는 직영하고, 쌀 100ha는 메뉴얼을 보급, 생산공정만을 관리하는 '지역단위 영농조합'

○ 장들친환경쌀 영농조합법인

- 농지를 단지화해 동작업, 공동판매, 공동정산
- 친환경 쌀생산 조합이 모태가 되어 마을 전체와 인근 농가를 포함한 39농가(89ha)가 참여

▶ 해외 사례

○ 일본은 마을을 단위로 농지이용 또는 농업경영을 하는 경영체(집락공동체) 설립

- ('08년 현재) 1만 2,095개 조합, 참가농가수 48만 9,918호, 농지면적 43만 6,312ha
- 집락공동체 당 평균 참가농가수는 41호, 평균 농지면적은 36ha

○ 한 개 마을 또는 몇 개 마을을 범위로 하되 마을주민의 합의를 전제로 하여 설립

- 이누칸노 영농조합 : 산간지역에서 3개 마을이 참가, 쌀 브랜드화, 전작 작물로 메밀 등을 도입하고 공동가공 사업을 조직
- 농사조합법인 니시사카 : 전작 작물로 대두, 맥류 등을 도입, 직접 경영하고 마을 전체의 농작업을 계획적으로 실시

■ '경북형 마을영농' 사례⁷⁾

- 경북도의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은 농지는 개인 소유, 경작은 마을단위 공동이 특징으로, 마을단위의 경작을 통해 경영비를 대폭 줄여 농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책 목적
 - 일본의 '집락영농'의 성공사례를 국내 최초로 벤치마킹해 경북지역의 농업 특성에 맞게 개량,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 마을영농의 경영주체에 따라 마을주도형 모델·농협주도형 모델·기업주도형 모델·혼합형 모델 등으로 분류
 - 기존의 개별소유와 개별관리 방식의 영농을 농지 소유자와 이용자를 분리, 농지 및 농기계 공동이용, 작업별 노동력 집중 투입 등을 통해 생산비용을 최소화하고 마을전체의 농업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최종 목표
- 경북도가 지원하는 3억원 내외의 사업비는 마을영농을 운영하는 전문 경영인이나 농기계 운영자 등의 인건비, 농기계 창고, 저장시설, 공동 농기계 구입비 등 사업 대상 마을의 실정과 필요에 따라 사용
 - 경북도는 2020년까지 도내 전체 경지면적의 10%, 2030년까지 15%까지 마을영농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

7) 석태문, 2013년 7월, 경북형 마을영농 정책의 의의와 발전방안, 대구경북연구원

제7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발 방안

7-1. 관련 법제화 방안

7-2. 관련 재원조달 방안

제8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8-1. 관련 법제화 방안

8-1-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 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의 지원으로 조성된 유희시설' 포함

※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2.4>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실용신안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1-2. <(가칭)사회적가치기본법⁸⁾>, <국유재산특례법> 일부 개정

■ 2014년 문재인의의원이 발의한 (가칭)사회적가치기본법 제20조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국·공유재산 무상 대여 및 사용 조항'을 일부 조정 및 개정

※ 7. 국공유재산 무상대부(안 제20조)

☐ 제정안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0조(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공유재산 중 무상대부) ①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일정기간 동안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임대기간 사용수익 등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한다.

③ 국·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수익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23조의 사회

8) 문재인의의원실, 2014년, 사회적가치기본법 발의안, 국회

적 책임 실천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공유재산의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는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국유재산특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한편,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음

○ 「국유재산특례의 목적이 공익에 부합할 것」과 관련하여 서는 제정안이 국유재산특례를 두는 목적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공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국유재산특례의 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제정안 제20조는 사용료 산정기준에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즉 제정안의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규정은 입법할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요건에 맞게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8-2. 관련 재원조달 방안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각 사업비 가용항목에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을 통한 시설 매입대금 및 임차료를 포함

<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연도별 재정(지역발전특별회계 / 생활기반계정 외) 투입 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안)
합 계	4,050,420	1,311,780	1,246,192	1,247,620	1,285,049
국 고	2,835,294	918,246	872,334	873,334	899,534
지방비	1,215,126	393,534	373,858	374,286	385,515

※ 자료 : 농식품부, 2014년,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비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사업 유형	농촌 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시·군역량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선도지구	일반지구	권역단위	마을단위							
				종합개발	종합 개발	공동 문화 복지	경제 (체험 소득)	환경 (경관 생태)	신규 (전원 마을)	시군 창의	
지원한도 (억원)	80이하	60이하	40이하	10이하	5이하			1.5 ~36	20이하	1.5이하	실소요액
사업기간 (년)	5이내	5이내	5이내	5이내	5이내			5이내	5이내	1	1

※ 자료 : 농식품부, 2014년,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세부유형	예산한도(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시행기간(년)	총부지구입비 /총사업비
선도지구	80	5년 이내	35% 이내
일반지구	60	5년 이내	35% 이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35% 이내 제한 미적용

※ 자료 : 농식품부, 2014년,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표>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단 위	세부유형	예산한도(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시행기간(년)	총부지구입비 /총사업비
마을	종합개발	10	5년 이하 자율	30% 이내
	공동문화·복지	5		25% 이내 * 체험·소득사업은 0%
	경제(체험·소득)	*소득사업은 2억원 이 하, 시설비의 20%는 자 부담		
	환경(경관·생태)	*경관개선을 위한 사 유 시설의 경우 20%자 부담		
	신규마을	1.5~36		0%
권역	종합개발	40		30% 이내

※ 자료 : 농식품부, 2014년,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 참고문헌

- 김정덕 외, 2013년 12월, 농촌지역 공유자원의 이용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섭 외, 2012년 9월, 귀농·귀촌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의 구조와 기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곤, 2012년,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중장기 육성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식품부, 2010년 12월, 마을단위 농업공동체 시범사업 추진방안
- 농식품부,공주대, 2012년,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2012년 12월, 마을종합개발사업 준공권역 하드웨어 구축 실태조사 및 하드웨어 구축방안 수립
- 농식품부, 2013년 7월,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방안
- 농식품부, 2014년,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 대산농촌문화재단, 2014년, '농업'으로 지속가능한 농촌의 해법을 찾다
- 대안농정대토론회 조직위원회, 2013년, 2013 대안농정대토론회 자료집
- 박시현, 2013년 8월, 농촌 6차산업화를 위한 농촌관광의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진도, 2013년 10월, 농업·농촌의 재발전과 지역의 도전, 충남대
- 석태문, 2013년 7월, 경북형 마을영농 정책의 의의와 발전방안, 대구경북연구원
- 성주인 외, 2012년, 도시민의 귀농·귀촌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외, 2013년 4월, 창조경제시대 농촌지역개발의 새로운 아젠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내원 외, 2010년, 농촌지역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마이뉴스, 2012년, 마을의 귀환
- 정기석, 2011년a, '마을시민으로 사는 법', 소나무출판사
- 정기석, 2011년b, '마을을 먹여살리는 마을기업', 이매진출판사
- 정기석, 2013년, 사회경제적 민생 국민농정 대안모델 개발 :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국회사무처
- 정기석, 2014년 10월a, 사람 사는 대안마을, 피플파워(경남도민일보)
- 정기석, 2015년 2월, 농부의 나라, 한티재
- 조영재 외, 2011년 12월, 충남 희망농어촌마을만들기의 추진모형 및 실천전략, 충남발전연구원
- 충남발전연구원 외, 2014년, 마을공화국의 꿈, 흥동마을 이야기, 한티재